웨체스터제일교회
Korean Church of Westchester

오늘의 말씀 – 토 (출 9:1-12)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4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5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6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7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섯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다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9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10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12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본문 이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거절하면 네 가축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매 애굽의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적용

다섯 번째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여, 애굽의 가축만 돌림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을 보내준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매번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했고, 그에 따

른 재앙도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재앙과 재앙 사이에는 바로가 그 의미를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여 재앙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바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도 없고, 가축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지요.

여섯 번째 재앙은 세 번째 재앙과 비슷했지만 그 정도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요술사들 조차도 악성 종기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바로는 완전히 외톨이가 돼버렸습니다. 항복할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이미 너무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둘째, 넷째 재앙 때는 항복하는 척이라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마저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회개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맷집만 좋아져서 결국은 부러지고 맙니다. 바로는 여섯 번을 맞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열 번째 맞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부러지기 전에 돌이켜서 말씀을 잘 듣는

부드러운 심령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재난(Covid-19) 가운데서 내 모습을 숙고하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가는 모세와 말씀을 거절하는 바로의 차이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주일 말씀: 삼하 3:1-5 점점 강하여 가는 삶)